

평택화력발전의 LNG 전환에 따른 대책

- 대한석유�협회 -

1. 최근 한전은 1.0% B-C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중인 평택화력에 LNG로의 대체사용을 검토중입니다. 이는 가스공사가 최근 공급과잉 상황에 이른 LNG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따라 한전은 기존사용 B-C를 LNG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중입니다.
2. 그러나, 각 정유사와 한전간의 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연료구입 중단 및 타연료로의 전환은 국내 대규모 유류 수요기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유사 수급계획상 증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국내 석유의 수급안정은 물론 정유사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내 공급이 어려운 B-C를 수출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최근 국제시황 등을 감안할 때, 헐값에 처분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정유업계 의견을 제출하오니,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평택화력에 기획정된 석유제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문제점

- ① 평택화력 수요는 30,000B/D로서 국내 B-C유의 6%에 해당하는 대형수요처로, LNG로의 전환추진은 임시방편적인 LNG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유사에게는 또다시 심각한 잉여 B-C 문제를 유발시키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② 정유사는 평택화력 공급을 위해 전용선박을 용선중인 바, LNG 대체시 용선선박의 유희화로 많은 비용낭비가 초래됨.
- ③ 평택화력에 대한 B-C 공급건은 정유사와 한전간의 계약사항으로 기획정된 상태로, 정유사는 이를 근거로 원유 및 제품 공급계획을 수립·운용중인 바,
 - LNG 대체로 계약물량 소멸시 제품판매에 엄청난 애로를 겪게 되어 국가 석유수급상 큰 혼란이 예상되며
 - 계약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로 인해 한전과 정유사간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신뢰관계의 붕괴가 우려됨
- ④ LNG 대비 1.0% B-C 사용경제성이 2배이상 우월('98. 4월 기준)한 바, LNG 사용확대시 국가적으로 큰 낭비요인이 발생함.

나. 건의사항

- ① 평택화력 1.0% B-C 사용 지속
- ② LNG 공급과잉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해소방안 모색 지원
 - 국내 타 수요처 적극 개발 및 Marketing 활동 수행